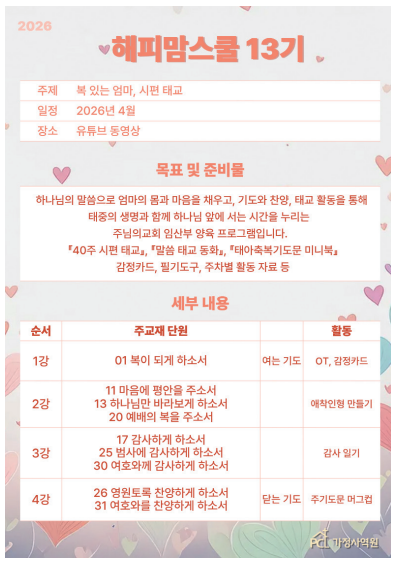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복 있는 엄마, 해피맘

가정사역원의 태교 프로그램인 '해피맘스쿨 13기'가 4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경이롭지만,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인 예비 엄마들에게는 긴장과 피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13기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엄마들을 배려하여 유튜브 동영상 강의와 네이버 밴드를 통한 소통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각 가정으로 『40주 시편 태교』, 『말씀 태교 동화』 등 주요 교재와 주차별 활동 준비물을 모두 발송하여 각자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태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4주간의 여정은 '복 있는 엄마, 시편 태교'라는 주제로 예배, 말씀, 감사, 찬양을 통해 아이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강 '복이 되게 하소서'에서는 감정 카드를 통해 엄마의 마음을 먼저 돌보며 시작했고, 2강에서는 애착 인형을 만들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평안의 기도를 심었습니다. 이어지는 3강에서는 매일의 감사 일기를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을 훈련했으며, 마지막 4강에서는 주기도문 머그컵에 커피나 차, 물을 마시며 '복되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윤병주 집사님의 스트레칭 영상은 임신으로 몸의 변화를 겪는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엄마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까지 평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엄마들의 따뜻한 나눔과 태교 활동 인증 사진들은 오프라인 못지않은 감동과 연결감을 선사했습니다. 귀한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해피맘스쿨 13기를 통해 뿌려진 축복의 씨앗들이 각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영원 목사 / 가정사역원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시편태교로 시작된 우리 가정의 첫 축복

태교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마음과 어색함에 따로 태교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의 소개로 해피맘스쿨을 신청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태교도 시작하고 아기에게 읽어주기 좋은 책들도 많이 받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책 내용을 통해 아기를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도 갈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태교 책 덕분에 매일 자기 전에 남편이 아기에게 태교 책을 기도와 함께 한 장씩 읽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은 저와 아기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태교를 해주던 중 태동을 처음 느끼게 되어 자신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실감이 난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아가라 현실성이 없었는데 진짜 튼튼이가 뱃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좋은 교재와 강의 준비해주시고 봉사해주신 가정사역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수강생분들도 축복 속에서 아기 건강히 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전수빈**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태교의 시간을 넘어 믿음의 시간으로

4주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태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삶의 묵상과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한 성령님을 깊이 느낄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성경(시편)이 말하는 참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복 있는 엄마'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입덧약을 끊어보려 했지만, 다시 심해진 입덧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강의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자이자 찬양팀 리더로서 늘 마음에 새기고 고백해 왔던 내용임에도, 잠시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는 말처럼,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처음 나누었던 묵상처럼, 이 모든 고백이 저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콩캉이)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함께 섬겨주신 목사님들과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수강생분도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하은**